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6. 29	07. 06	07. 13
대 표 기 도	최종열 성도	이상호 목사	이윤선 성도
성 경 봉 독	최종열 성도	정환영 형제	이윤선 성도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담임목사 동정 - 교단 선교부 모임에 참석합니다(23~26일, 베를린)
4. 나눔의 시간 - 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합계 (Euro)	
온라인헌금(6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582장	다같이
기 도 Gebet	-----	김새연 자매
성경봉독 Predigttext	눅 20 : 21 - 26(신p131) (Lukas 20:21-26)	김새연 자매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관계회복(V) - 귀 기울이기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과 입시와 취직 준비생들을 위하여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4. 백승민 자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5.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6.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숨김 없는 기도

언제나 기도 책을 보면서 기도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일을 하러 나가면서 깜박 잊고 기도 책을 챙기지 않아 하루 종일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누엿누엿 질 때까지 기도를 하지 못한 농부는 마음이 너무나 불평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기도 책을 놓고 나왔지 뭐니까? 저는 기도 책 없이는 단 하나의 기도문도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알파벳 A에서 Z까지 다섯번 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고 알파벳을 잘 맞춰서 기도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불러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아 그동안 농부가 드린 기도 중에서 오늘 한 기도가 가장 좋구나 왜냐하면 오늘 기도는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이란다.’

“좋은 기도”란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꾸미지 않고 거짓 없이 진실 그대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몸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가정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듭니다.” “주님, 저희 자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원로목사)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우리가 말하는 “듣는 것”과 “귀 기울이기”의 차이에 대해 나눠 보세요.
2.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경청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 해 보세요.